



문서번호 : 23-10-미디어언론위-0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담당: 이수연 간사 070-5176-8161)
제 목 : [공동 취재요청서] “증언은 힘이 있다! 윤석열 정부 언론탄압 실태와 과제” 증언대회 개최
전송일자 : 2023. 10. 27.(금)
전송매수 : 총 2 매

[공동 취재요청서]

민언련, 전국언론노조, 참여연대, 민변 미디어언론위 공동

“증언은 힘이 있다! 윤석열정부 언론탄압

실태와 과제” 증언대회 개최

일시 장소 : **2023.11.1(수)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윤석열 정부들어 정부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위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고소고발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등 언론탄압의 양상이 더욱 노골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방통위, 방심위는 가짜뉴스라는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용어를 가져와 대대적인 가짜뉴스심의를 선포하고 심의대상이 아닌 인터넷보도까지 심의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안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임은 판례로써 정립되어 있으며, 특히 언론은 권력 감시가 본연의 임무이자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공기(公器)입니다.
- 이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 언론의 자유 신장을 위한 활동을 해 온 시민사회는 최근 고소, 고발 및 손배소 등 권력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수난을 겪고 있는 언론인들의 실제 상황을 생생하게 듣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실상을 확인하며, 언론 공공성과 알권리 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연대를 공고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증언은 힘이 있다! - 윤석열 정부 언론탄압 실태와 과제
- 일시 및 장소 : 2023. 11/1(수), 오후 2시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태일 팀장
 - 증언
 -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
 - 최병호 뉴스토마토 편집국 탐사보도팀 기자
 -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
 - 라운드테이블 : 앞으로의 과제 모색
 - 위 증언자들
 - 이창현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
 - 신미용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위원
 - 신미희 민주언론연합 사무처장

※ 참가자 및 발표 순서는 추가 혹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민언련, 전국언론노조, 참여연대